

	2021년 08월 07일 오전 11시 15분 경
	공 항 대 기 실
	박 정 은
	박 정 은 하 태 원
<p>— 「***」 , 가 .</p> <p>— , , .</p> <p>— 가 .</p> <p>— 가 .</p>	

2023 03 14



속 기 록 제 작 소
속 기 사 이 연 지

국가공인기술자격 17-G2-RT0098





◆ (00:48:47 - 01:05:22)

하태원 뭐 니가 뭐 이런 일, 저런 일, 이런 일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니가 내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 병원에 들렀고 약을 먹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...

박정은 그 과정들이 모두 종합돼서 너에게 상처들이 쌓여서 그런 거야.

하태원 그러니까. 그렇게 내가 상처를 준 건 맞는데, 내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앞 과정이 니가 어디 부분에서 얼마만큼 상처를 받아서 그게 쌓이다, 쌓이다, 쌓이다가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어. 근데,

박정은 그렇지. 하나씩 꺼내주고 있는 거야.

하태원 그러니까.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앞에 것들이 뭐,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어떻게 쌓여서 니가 뇌에서 신고를 하게 된 건 모르지만 그 내가 니한테 그러면 전화하고 니를 만나게 되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번은 만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 타이밍이 뭐 안 맞았었고.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할 때도 니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뭐 화를 짜증내다 갑자기 다시 돌아왔다가 몇 번을 하는 거야.

박정은 너가 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욕 안 한 거야.

하태원 욕하지 말아야,

박정은 너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욕을 안 해? 내 인생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.

하태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왜 만나는 거야? 지금 니가 말하는,

박정은 그러니까 너를 만나면서 내가,

하태원 지금 왜 만났냐고.

박정은 사과 받으려고.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, 너를 만나면서 내가 아때



까지 생각했던 내 속마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. 너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나는 그때 너한테 말을 못했다고. 근데 너는 계속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...

하태원 그거는 그냥 그 그때 당시에 말을 못했던 거를 이제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입장은...

박정은 그러니까 내가 ***

하태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버렸는데 갑자기 니 말대로 뭐 내한테 좋았던 기억이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많을 수도 있어. 그런데 니가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, 내한테 기억 안 나냐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지. 내가 어떻게,

박정은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.

하태원 그러니까.

박정은 너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겠지. 그래. 일부러 사람한테 상처 주게끔 그런 행동은 아니었겠지.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몰랐겠지.

하태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니가 하나씩 지금 꺼낸다는, 방금처럼 니가 이제 그때 말 못했던 거를 꺼내려고 했을 때 방금 너는 아, 그때 당시에는 이래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지 “그거 기억 안 나냐.” 뭐 어쨌냐, 저 쨌냐 하면 나는...

박정은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해.

하태원 그래서 지금 방금 니가 말한 건데 왜 거짓말을 하나며. 나는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데.

박정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짓말한다고 하지. 내 뇌 속에 있는 니가 꺼낸 말들, 니 행동도, 니 표정도 내 뇌 속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있는데. 거짓말은 아니야, 내가 하는 말들 다. 그리고 내가, 그래. 계속 내가 상처 받았던 걸 생각해서 얘기해볼게. 그냥 듣기만 해. 계속 피가 나고 그랬어, 그



러다가 너 대회가 막바지가 되고 나 너 바디프로필 찍어주고 진짜 너 도와주고 재미있었어. 니가 열심히 하는 것도 보기 좋았고. 너를 계속 그렇게 나를 술 취했을 때 함부로 한 거 너무 미운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없는 것 같았는데. 그거는 그냥 기억의 한 편에 사라지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고 너 계속 만났는데 니가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계속 피곤해하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런 거 같았어.

(00:53:13 - 00:53:47 공항 내 안내방송 소음으로 대화내용 청취 불가)

박정은 근데 너는 당장에 빨리 하고 싶으니까 내 말이 안 들렸겠지.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하는 자세 계속 했잖아. 그건 기억나?

하태원 그러니까 그 아프다고 한 자세가,
박정은 끝까지 하는 거.

하태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. 그거를... 생각을 하다가도 니랑 그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씩 그때 그냥 뭐야, 그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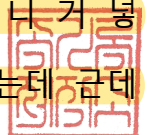
박정은 그래서 피가 났으면 다음번에 할 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.

하태원 미안.

박정은 무튼 그런 상처는 계속 쌓였고 대회 끝나고... (울먹임) 뷔페 갔다가 사실 그날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... 니가 나를 진짜 좋아했으면 같이 눈 떴을 때 일어났냐고, 잘 잤냐고 얘기할...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, 내가 느꼈을 때는. (울먹임) 너랑 그래서 *** 싫어서 *** 씻은 거야. 그리고...

하태원 그다음 얘기하는 거야?

박정은 응. (울먹임) 그리고 *** 갔다가 *** 가야 되는데 너도 아쉬우니까 나한테 하자고 그랬는데,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너는 내 입에 니 거 넣고 막 했는데 당연히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피가 엄청 나는데 근데



도 너는 끝까지 하고 *** ** 화장실에 데려가서... (울음) *** **. 니가
진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***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나한테 그런... (울
음)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.

(00:56:14 - 00:56:35 공항 내 안내방송 소음으로 대화내용 청취 불가)

박정은 *** ** 그리고 나 *** ** 그래도 나는 *** ** 않았어. 그냥 빨리 *** 그
랬어. (울음) *** ** ** ** **.

하태원 울지 마. 내 말 들어봐 봐. 대회 끝나고 나서 준비할 때 니가 많이 도와
준 거 다 알아. 근데 내가 니한테 뭐라고 했는데. 끝나고 좋은 데 가자
고 얘기를 했잖아. 어? 그래가지고,

박정은 다른 사람이랑 다 놀고 나서,

하태원 아니, 아니, 들어봐 봐. 그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못 놀았으니
까 7월 달은 좀 놀게,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.

박정은 응. 놀아.

하태원 그래 놀라고 했고. 근데 니가 생각했던 거보다 내가 좀 많이 놀았던 거
지.

박정은 나랑 먼저 안 놀고 다른 사람이랑 놀았잖아.

하태원 그게 왜 내가 그때 잡았냐면, 우리가 마지막 주에 봤잖아. 너 그 주에
봤었잖아. 어? 그때 봤으니까 그쯤에 되겠다라고 나는 내 기준에서는 그
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.

박정은 그래서 내가...

하태원 아니, 그 주에 *** **

박정은 *** **

하태원 미안해.

박정은 (울음) *** **...

하태원 *** ** 자니까 갔다 와서 니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내가 판단

박정은 *** ** ** ** 그렇게 말했잖아.



하태원 아... 미안. 내 혼자 스스로 정해서.

박정은 *** 미안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*** 그렇게 *** *** (울음) 그날 정말 니가 심했고. 실수***.

하태원 ***

박정은 (울음) 니가 날 진짜 좋아했으면은 나를 그렇게 ***... (울음)

하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. 내 혼자 그쯤에 보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니 의사 안 물어보고 그때 정해서 미안해.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로 첫째 주 아니면 뭐 후반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... 미안해.

박정은 ***. 내 그때 기분이 그랬다는 거고 다 끝났으니까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. 이미 너무 오래 지났고 사과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아. 그리고...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한테 못 만나겠다고 말하고... 이틀 동안 너가 연락이 없이 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잖아.

하태원 첫 번째 ***. 그때는 그 뒤에 그래서 니가 얘기를 했잖아. 어떻게 하면 뭐 ***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. 그러니까 그 니 심리가 그랬던 거고 반대로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니한테 그날 그게 아니었다니까.

박정은 왜?

하태원 내가 니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 그 상황에? 내가 니한테 먼저 연락하는 그 자체가...

박정은 얘기 덜 끝났었잖아. 그때 니가 15분 뒤에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전화 끊었었잖아.

하태원 "끝내자." 했었잖아 그때, 니.

박정은 어. 왜 "끝내자."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?

하태원 "끝내자." 그러니까 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니가. "끝내자."라고 해서 나는 내 입장에서는... 아니, 그... 그때 내가 잘한 게 없었으니까 니가 생각했을 때 그랬구나 하고 나는 이제 그래 됐는데 니가 이틀 후임가 3일



뒤에 나한테 뭐 *** 얘기를 했잖아. 그때도 똑같이 *** 궁금하고 니가
어떻게 힘든지 당연히 *** 했지만,

박정은 궁금하고 자시고 쳐 노느라,

하태원 쳐 노는 게 아니고.

박정은 말은 끝내,

하태원 말 예쁘게 해라.

박정은 예쁘게 하고 싶어도 말이 맞는데 어떻게 해. 너 친구들이랑 재미있게
놀았잖아.

하태원 근데 이거랑 그거랑 왜 연관되는데?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. 일은 일
이고.

박정은 그래서 너가 사이코패스 같은 거야.

하태원 미안한데, 그 ***에 빠져가지고.

박정은 나는 밥도 못 먹고 집안에서 이러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너는 친
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.

하태원 아니, 친구들이랑 내가 밥 먹고 ***

박정은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너가 하나도 모르는 거야.

하태원 그 부분 그... 니가 받은 상처를 내가 알 수 없어서 그거 지나와서,

박정은 그래.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성 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다음 날까지
쫓나 신나게 술 먹고 그러는 사람이 제정신이야? 난 태어나서 그런 애
기 들어본 적이 없어.

하태원 그때가 내가 놀러 가있었을 때겠지.

박정은 응.

하태원 그러면 그 가있는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"아, 씨발 내 못 먹겠다. 집에
가야 되겠다." 이래야 하나? 내 때문에 다 기다리고 있고.

박정은 암전히 그냥 놀아.

하태원 암전히 노는 게 *** *** 아는 거잖아.



(01:03:15 - 01:03:45 공항 내 안내방송 소음으로 대화내용 청취 불가)

하태원 갈 때는 가족끼리 갈 때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.

박정은 뭘 말이야.

하태원 내가 제주, *** 만나고 오기 전에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그 장난친다고
그 얘기 하는 거 아니냐. 그때 가족끼리 갔으면 뭐,

박정은 가족끼리도 갔다가 친구들이랑 놀았잖아.

하태원 그건 그때 맞아서 논 거고. 그리고 그때 *** 한 거 아니라고.

박정은 그냥 내가 말하는 건 왜 안중에 없이 또 제주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.
제주도 일정을 계속 얘기 꺼낸 거잖아. 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
아니라 제주도 놀러 갈 생각을 한 거다 이 말이야. 솔직히 근데 안중에
도 없었던 것도 맞잖아.

하태원 안중에 없지는 않았어.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니랑 내랑 사이가 좋을 때
가 아니라니까.

박정은 응. 너가 잘못된 상황이었잖아.

하태원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상황이었잖아. 그 상황이면 뭐 그럼 니 생각을
그럼 어떻게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? 그거는 판단이
다른 거야.

박정은 어.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.

하태원 내 같은 사람 많은데 주변에. 너도 니 같은 사람 ***

박정은 그러니까 니 같은 사람밖에 없겠지.

하태원 그래. 그럼 니도 니 같은 사람 있으니까 니 같은 사람 만나겠지. 원래
그런 사람,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못하
는 거고. 니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헤어지고 ***

박정은 그렇게 살아 태원아.

하태원 그렇게 살 거야. 나는 이렇게 지금 니랑 말싸움하려고 온 게 아니야. 그
날 내가 잘못된 거,



박정은 알겠어.

- -

	145-03-01093		110 B1, 109
	02-584-0728		17-G2-RT0098

